

건축계 뉴스 / 정보

신축건물에 주차·녹지의무화 미관向上 외벽단장도

공항로, 경인고속도로, 남부순환도로변과 폭20m 이상의 도로변에 신축되는 건물은 전면에 주차 및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건물의 외벽을 단장해야만 한다.

서울시는 공항로등 주요도로변과 미관도로변의 신축건물의 미관을 높일 수 있도록 건축조례에 새로운 건축 및 조경기준을 마련, 앞으로 발급하는 건축허가에 적용키로 하고 건축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이 기준에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새로운 건축기준에 따르면 상가 점포등 비주거용의 경우 건물의 후면 배치 원칙을 적용, 반드시 건축선을 후퇴하여 그 앞면에 주차장이나 녹지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건물형태는 주변의 기존건물과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외관을 꾸미고 굴뚝 환기설비 등 옥상구조물은 건물후면에 배치,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벽면은 돌·타일등 불변재를 사용 건물 품위를 높이되 인접건물과 조화있는 색깔을 써야 한다.

조경기준은 블록담장대신 높이 1~2m 정도의 나무를 심어 생활타리를 만들거나 불가피할 경우는 투시형 담장을 만들도록 했으며 건물앞에는 반드시 낙엽교목으로 조경하도록 했다.

주거용건물(주택)도 주요 도로변이므로 외관·형태·구조·재료 등을 고급화하고 대문·담장 등 부속시설이 건물

과 조화를 이룰수 있게 하기 위해 건축허가신청시에 대문과 담장의 설계도를 첨부하도록 했는데 담장은 생활타리나 투시형을 권장하기로 했다. 또한 지붕은 평슬라브를 피하고 기와를 없도록 권장했으며 조경계획서에 수종, 규격, 위치, 수량을 반드시 명기토록 하고 단풍나무나 목련 등 낙엽이 지는 교목을 심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來年부터 新改築 規制 都市設計技法 도입

서울시는 세종로를 비롯한 종로·을지로 등 3개 도로를 국제도시인 서울의 면모를 나타내는 상징도로로 개발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최초로 도시설계기법을 도입, 명년부터 이 지역에 신축·증축·개축하는 모든 건물은 시의 도시설계도에 따라 엄격한 통제를 받게 할 방침이다.

시에 의하면 이를 위해 이미 지난 연초에 한국종합기술개발회사에 1억 2천만원의 용역비를 지불하고 세종로·종로·을지로 등 3개 도로변의 도시설계도 작성을 의뢰,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시안을 완료케 할 예정이다.

시는 시안이 나오는대로 곧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 명년 1월초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도시설계기법은 도로변 전체를 망라한 설계도를 작성, 이 설계도대로 개발을 해나가는 것으로 이 설계도에는 불력별 개발계획(용도규정)을 비롯하여 건물의 위치, 건물의 규모(건폐율·용적율) 등이 상세히 규정되며 특히 도로변의 특성을 부여키 위해 건물의 외양도 위치별로 정해진다.

도로별 적용구간은 세종로는 중앙청에서 남대문까지, 종로는 광화문에서 동대문까지, 을지로는 시청에서 을지로 6가까지로 되어 있다.

이 도시설계기법이 적용되면 건물의 신·증·개축시엔 엄격한 통제를 받게돼 행정당국은 도시개발을 의도대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8개 生活圈 계획 조사 수도권등 국토균형개발

건설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인구지방정착을 촉진시키기 위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8개 생활권에 대한 계획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지역기능에 적합한 생활권을 조성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건설부에 의하면 오는 86년까지 실시될 이들 8개 생활권계획조사는 수도권을 비롯한 부산권·대구권·광주권·전주권·충청권·태백권 및 제주권 등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3억 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두고 있다.

건축사 대행업무 확대 2층이하 3백평미만도

건축물의 허가과 준공에 따른 건축사의 대행업무가 확대됐다.

서울시는 전평 2백평 미만의 단독주택에 한하여 허가 및 준공에 따른 조사와 검사업무만을 대행케 했던 건축사에게 2층 이하에다 3백평 미만의 점포까지 맡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법건물 단속반을 운영, 적발된 건축물은 즉시 철거하고 건축주와 건축사를 연대처벌하기로 했다.

또 건축허가와 준공과 관련된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지난 8월24일 이후 건축사가 대행, 처리한 건축물을 일제히 조사하기로 했다.

大型공사 입찰제도 개선 재무부, 회계규정 개정안 마련

설계·시공일괄(턴키방식) 및 代案 등 대형공사의 입찰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재무부가 마련한 「대형공사 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 특례규정개정안」에 의하면 최저가격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과 대안입찰제를 개선, 입찰금액과 設計点数를 고려한 우수설계 채택우주의 낙찰자 결정 방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특히 입찰자의 과다한 설계비 부담을 경감키 위해 기본설계 입찰과 實施설계 입찰로 분리 시행하여 5인 이내의 기본설계 적격자를 선정할 후 이들에 대해서만 실시설계 입찰에 참가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입찰참가자격 기준결정 이후 공고하여 설계서 및 입찰금액을 附記한 기본설계 입찰을 한 뒤 중앙설계 심사위원회에 설계적격여부를 심의의뢰하고 입찰금액과 설계점수를 고려, 5인 이내의 실시설계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실시설계 입찰을 하고 다시 설계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했다.

설계시공일괄입찰의 낙찰자 결정은 기본설계 입찰시 일괄입찰금액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최저인 것부터 5인 이내를 선정, 실시설계 입찰적격자라고 하고 실시설계 입찰에 참가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을 위해서는 계약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괄입찰의 채택여부를 결정해야하며 입찰금액과 설계점수를 통한 평가방식에 의거, 최저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또한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기본설계 입찰에 있어 提案部分에 대해서는 대안부분 입찰금액을 대안부분의 설계점수로 나누어 총 공사 중 대안부분이 차지하는 율을 곱하고, 原案部分에 대해서는 원안부분 입찰금액을 원안부분 예정가격에 기준한 評点으로 나누어 총 공사 중 원안부분이 차지하는 율을 곱하여 양자를 합한 수치가 최저인 것부터 5인 이내를 선정, 실시설계 입찰적격자로 한다.

이어 실시설계 입찰에 참가한 자 중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기본설계입찰 때의 평가방식에 의거하여 최저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

이 개정안은 대안입찰에서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대안입찰의 낙찰자 선정규정에 의한 입찰 중 繼續費工事인 때는 총 공사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격 입찰자를,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제 1차 공사입찰금액과 附記한 총 공

사 입찰금액이 각각 예정가격 이하이고 부기한 총 공사 입찰금액이 최저가격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했다.

그러나 최저가격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의 85/100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개정되는 예산회계법 시행령의 가격심사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때의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 입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했다.

이 개정안은 대안입찰에서 필요한 때는 기본설계 입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하고 기본설계 입찰에는 △대안에 대한 배치도·평면도·입면도·일반단면도 △대안에 대한 설계설명서 △대안에 따른 이점 및 기타 공고로 요구한 사항을 제출케 했다.

또 실시설계 입찰에는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대안부분에 대한 설계서·구조계산서 △대안채택에 따른 이점, 기타 참고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설계·시공 일괄입찰에서 기본설계 입찰은 △일괄입찰에 대한 배치·평면·일반단면도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설명서 △일괄입찰에 따른 이점 및 기타공고로 요구한 사항을 내야 한다.

실시설계입찰 때는△일괄입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설계서·구조계산서 △이점 및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시하게 했다.

재무부는 이 개정안을 연내 공포할 방침이다.

建築大展 개최

대상에 박물관 뿔혀

제 1회 대한민국 건축대전이 문예진흥원 전시장에서 지난 15일부터 막을 올렸다.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국전에서 분리되어 열리는 첫번째 건축대전으로 건축가협회가 주관이 되어 개최한 것이다.

이번 건축대전에는 모두 45개 작품이 출품, 지난 12일 심사를 거쳐 26개 작품이 입선작으로 뽑혔다. 대상을 비롯한 우수상 3개 작품은 다음과 같다.

□대상= 제목 “박물관(Museum)” 양남철·최윤경·이현수 공동작품

□우수상= ① 제목 “민족수난·극복의지·승화” 김문덕·김성기·김성택 공동작품 ② 제목 “맑은물·푸른서울” 홍사엽·김주연·공순구 ③ 제목 “고전과 현대의 만남” 노광현 작품

五輪組織委건물 현상 발표

'88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건물 현상 계획설계 심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총 공모작품 14점 가운데 김 원 (건축연구소 광장)·김 기용 (건축설계연구소 삼정:본회회원)·최 관영 (종합환경연구소 일건:본회회원)씨 등 공동작품이 우수작으로 선정되었으며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한국외환은행 본점 4층에서 제출작품 14점에 대한 전시회가 있었다.

한편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번 공모된 작품 중에서 최우수작이 없어 추후 다시 현상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상 마감 박두

전시회 통해 일반에 공개

서울시가 시내의 우수건축물을 선정포상해서 도시미관조성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하고자 추진 중인 '82년도 서울시 건축상 후보 작품 출품 마감이는 10월31일로 닥아왔다.

출품대상은 82년도 준공 또는 준공예정인 건축물 중 본회 및 한국건축가협회, 건축학회가 추천한 작품으로 건축사 설계사무소를 낸 건축사가 제작한 작품으로 한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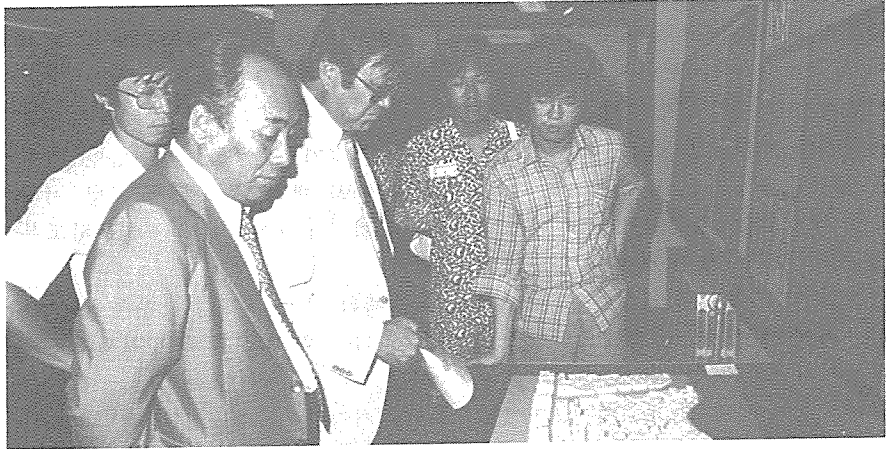
금상(1명 부상 1백만원)·은상(2명 부상 각50만원)·동상(3명 각30만원) 작품 등으로 선정되는 이번 건축상의 출품요령은 원공사진 또는 투시도(모형제출은 임의)와 배치도, 평면, 입면, 주단면도, 그리고 건물명, 건물개요(위치·규모·주위환경·기능도등)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야하고 규격은 판별(90cm×90cm) 2~5개

서울대학교 건축전 개최

서울대학교 82년 건축전이 지난 9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同校 학생회관에서 열렸다.

82년도 졸업작품전이기도 한 이번 건축전에는 도심교향곡·농촌개발을 위한 제언·한강을 살리자·서울대 기숙사 확장안 등 4학년 56명의 건축과 학생들이 17개 팀으로 나누어 작품을 내놓았으며 2·3학년과 대학원생의 찬조작품도 출품되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본회 具琬會회장 및 이사진은



□건축전을 참관하는 具琬會회장과 朴商浩이사

건축전 개막일에 참석하여 화분을 전달하고 참가 학생들을 격려해 주었다.

정도로 되어 있다. 한편 작품제출시 제출자명 표기는 작품과 분리해서 표기해야 한다.

출품작품은 전시기간을 갖고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來年 住宅사업 적극 전개 新都市 건설사업도 계속

정부는 명년도 주택 및 도시부문에 총 사업비 3조 8천 152억원을 투입하여 주택 28만호 건설과 21.8km²에 달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반월과 과천 등 2개 신도시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관계당국에 의하면 제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기간 중 2차년도인 오는 83년도에는 연차적으로 시행해 온 주택건설사업을 집중 건설하여 전국의 주택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무주택 서민층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11만호를 건설하고 민간부문에서 17만호를 건설하는 등 총 28만호를 신축하는 한편 도시개발사업으로는 도시 환경에 역점을 두고 구획정리 16.2km²와 재개발사업 3km², 공원설치 기반조성사업 2.6km² 및 도로사업 146km를 전개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또 신도시건설사업으로는 수도권공해공장 이전과 인구의 지방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공업도시건설은 195만평을 추

가로 조성키로 했으며 간선도로 789아루를 포장키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처음 전원도시로 건설되는 과천 신도시건설사업도 계속 시행하여 오는 84년도에 완공키로 계획하고 있다.

이들 사업 중 주택건설부문에는 총 3조 4천 751억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공공부문 11만호 건설에 9천 267억원을 투입하고 민간부문 17만호 건설에 2조 5천 484억원을 계상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개발부문에는 총 3천 401억원이 투자되는데 이중 도시개발공공시설사업인 16.2km²의 구획정리사업과 3km²의 재개발사업 등에 484억 7천만원을 계상해 두고 있고 2.6km²의 공원설치 기반조성사업에 13억 2천 500만원을 투자하며 도로연장 146km 건설사업에는 588억 500만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신도시건설사업에는 2천 315억을 투자하여 오는 84년도에 마무리 지을 계획인데 이중 반월 신공업도시 건설에는 1천 191억원을 투입하여 공장신축부지를 비롯한 택지조성 등 195만평을 더 조성하고 간선도로 등 789아루를 확장, 포장키로 계획되어 있으며 과천 신도시 건설사업에는 1천 124억원을 투자하여 중앙관통도로와 우회도로, 택지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3차년도인 오는 84년에는 총 4조 1천 547억원을 들여 공

공과 민간주택 등 29만호를 건설하고 구획정리 16.4km², 재개발사업 3.1km², 공원설치 기반조성사업 2.7km², 도로사업 147km와 반월 신공업도시에 195만평의부지조성과 789아루의도로포장, 그리고 과천 신도시건설사업을 전개해 나가기로 계획하고 있다.

獨立紀念館 입지 확보키로 추진일정 등 계획세워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 5일 하오 3시 서울 중구 필동 「한국의 집」에서 첫 이사회를 열고 위원장에 전 광복회 회장 安椿生씨를, 부위원장에 金相吉(광복회 회장), 崔昌圭(순국선열유족회 회장) 兩氏를 선임하는 등 이사 30명과 감사 3명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착수했다.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는 이사회를 통해 올해 안에 100만평 규모의 기념관 부지를 확보하고 83년 말에 공사를 착수, 86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추진일정을 세웠고 건축·설계·전시 등 각 분야의 전문적인 업무를 분담할 각계 전문인사로 기획위원회도 구성했다.

이날 밝혀진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총 5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독립기념관은 80년대의 우리 국력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營造物로 1백만평 이상의 넓은 대지에 조성하는 것으로 되

어 있다.

독립기념관에는 6·25전란을 포함한 우리 민족의 모든 국난극복사 자료가 아울러 전시되며 이 대지는 정부에서 제공토록 협조요청할 방침이다.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는 이를 위해 10월 중으로 기획단을 구성, 종합기획·기념비·기념관·전시물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12월까지 각 시설물의 배치, 시설의 규모, 공원조성 등 기본방향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 83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기념비와 기념관·광장·공원 등의 설계를 마치며 조경·토목·건축·전기·통신기계 등의 기본설계도 마치고 있다.

이어 11월부터는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한편 전시내용은 오는 12월까지 연대별·사건별·인물별·지역별로 체계화하며 개인·가정·단체·機關所藏史料蒐集運動을 명년 12월까지 적극 전개한다.

해외에 흩어진 자료의 조사와 수집은 정부 및 민간차원 두가지 경로를 통하기로 했다.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는 업무추진 과정의 모든 계획을 공청회에 붙여 국민의 여론을 최대한 반영키로 했으며, 국민성금모금운동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까지 추진위원회가 집계한 건립모금성금은 1백92억 6천 만원에 이르고 있다.

독립기념관 추진일정과 추진위원회 기획위원회위원 중 건축부문위원은 다음과 같다.

□ 추진일정

△입지선정 (82. 10) △기획단 구성 (82. 10) △基本計劃成案 (82. 12) △기본설계 (83. 9) △주변토목공사 (83. 6월부터) △實施設計 (83. 10월부터) △착공 (83. 11) △완공 (86) △전시 내용 확정 (82. 12) △전시자료수집 (82. 9 ~ 83. 12) △전시물제작·장치 (83. 1~86)

□ 企劃위원 (건축부문)

△건축·조경=김 중업·김 원·윤 승중·김 석철·오 휘영·민 경현

건축사 거래질서 문란신고센터 활용안내

본회에서는 건축사 업무의 잔존비리, 폐습인 ① 면허대여 ② 동업행위 ③ 설계비 덤핑 ④ 불실설계 및 감리 등을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본협회 및 각 시·도 지부에 <건축사 거래질서 문란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래질서의 생활화와 직업 윤리의식 함양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건축사 거래질서 문란 신고 센터를 적극 활용해서 정의로운 사회정화 구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 거래질서 문란 신고서

문란유형			
문란자	상 호	전 화	
	주 소		
신고내용 - 6 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바랍니다.			
신고자 :	(인)		
주 소 :	(전화)		
	198	년	월 일
대한 건축사 협회 건축사 거래질서 문란신고 센터(723-9491)			

住宅재개발 84地區 해제 서울·부산·마산등 3개도시

정부는 서울·釜山 馬山 등 3개도시에 지정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 2백82개지구의 5백53만 4천평 중 84개지구 1백24만 6천평을 해제하고 2개지구 8만 4천평을 추가지정, 고시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이들 지역이 장기적으로 재개발지구로 묶임으로써 지장을 받고 있는 서민들의 재산권행사와 증·개축행위를 완화하고 도심미관상 재개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속성있게 조정키 위한 것으로 건설부는 3개시에서 낸 주택개량재개발지구조정안을 中央都市計劃委員會에 올려 심의, 확정할 방침이다. 해제될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지구는 ▲서울 三清제 2지구(鍾路구 三清동 산 2의 10일대) 등 74개지구 1백16만 8천평과 ▲釜山 동대신동지구 등 8개

지구 6만 4천평 ▲馬山 서성지구 등 2개지구 1만 4천평으로서 이중 전역이 해제될 지구는 36개지구의 60만 3천평, 일부만 해제되는 지구면적은 48개지구 64만 3천평 등이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에서 해제되면 각시에서 개발심의에 들어가 무허가건축물이라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구제대상이 되면 양성화 되며 위촉됐던 거래도 풀리게 된다.

해제될 주택개량재개발지구의 무허가 주택 및 건물은 모두 1만 4천 2백 17동에 달하고 있다.

한편 건설부는 서울시 요청에 따라 城東구행당동 122일대와 金湖동 317일대 8만 4천평을 주택개량 재개발지구로 추가지정할 계획인데 이 조정안대로 확정되면 전국의 재개발 지구는 2백개지구에 면적은 4백37만 4천평이 남게된다.